

# ‘기쁘다’를 의미하는 ‘喜’, ‘樂’, ‘快’, ‘歡’에 대한 연구\*

박윤조\*\*

## 목 차

1. 들어가며
2. ‘喜’, ‘樂’, ‘快’, ‘歡’의 ‘기쁘다’ 의미의 특징
  - 1) 喜
  - 2) 樂
  - 3) 快
  - 4) 歡
4. ‘喜’, ‘樂’, ‘快’, ‘歡’의 형태소적 사용 특징
5.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는 ‘喜’, ‘樂’, ‘快’, ‘歡’이 나타내는 ‘기쁘다’ 의미의 차이와 형태소로서의 사용 특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고대 사전류 및 조기 용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喜’, ‘樂’, ‘快’, ‘歡’의 본의를 확인하고, 다양한 시기별 예문들을 통해 각 형용사들이 나타내는 ‘기쁘다’ 의미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대중국어의 단어들에 나타나는 ‘喜’, ‘樂’, ‘快’, ‘歡’의 형태소적 사용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喜’, ‘樂’, ‘快’, ‘歡’이 형태소로 사용된 단어를 수집하고, ‘기쁘다’ 의미의 형태소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단어 구조의 특징 및 음절 위치의 경향 등

\* 본고는 전주대학교 2020년도 연구년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중국어학과 교수

을 비교하고자 한다.

**키워드:** 기쁘다, 喜, 樂, 快, 歡, 의미, 형태소, 유의어

## 1. 들어가며

본고는 중국어에 사용되는 ‘기쁘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喜’, ‘樂’, ‘快’, ‘歡’의 의미적 특징과 형태소로서의 사용범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同義詞詞林》(1983)에서 ‘기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의어들을 살펴보면 ‘高興’, ‘愉快’, ‘快樂’, ‘歡樂’ 등 총 73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sup>1)</sup> 이는 유의 관계로 이루어진 비교적 큰 의미장이라 볼 수 있다. 이들 어휘들에 사용된 漢字들을 살펴보면, ‘기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73개의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자 중 ‘기쁘다’를 뜻하는 것은 ‘歡’, ‘快’, ‘樂’, ‘陶’, ‘怡’, ‘愉’, ‘娛’, ‘悅’, ‘喜’, ‘欣’, ‘幸’, ‘興’, ‘豈(凱, 愷)’로 나타난다. 이 자들은 모두 고대 중국어에서는 1음절로 ‘기쁘다’의 의미를 나타냈다.

본고는 먼저 ‘歡’, ‘快’, ‘樂’, ‘陶’, ‘怡’, ‘愉’, ‘娛’, ‘悅’, ‘喜’, ‘欣’, ‘幸’, ‘興’, ‘豈(凱, 愷)’에 의해 구성된 현대중국어의 단어들을 《現代漢語詞典》(2012)과 《倒序現代漢語詞典》(1987)을 통해 수집해 보았다. 현대중국어에서 위에 열거한 형용사들은 단독으로 단어를 이룰 수 없기에, 형태소로서 얼마나 많은 수량의 단어에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이들의 사용빈도를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 형용사가 형태소로 사용된 단어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喜’, ‘樂’, ‘快’, ‘歡’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sup>2)</sup> 따라

1) 梅家駒의, 《同義詞詞林》, 上海辭書出版社, 1983, p.229, G 心理活動 > Ga 心理狀態 > Ga 01 高興 悲傷의 항목 아래 ‘高興’과 유의어 관계를 맺는 73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2) 《現代漢語詞典》과 《倒序現代漢語詞典》을 통해 이 형용사들이 ‘기쁘다’ 의미의 형태소로 첫 음절과 끝 음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수집한 결과, ‘欣’은 9개, ‘悅’은 7개, ‘娛’와 ‘幸’은

서 본고는 ‘喜’, ‘樂’, ‘快’, ‘歡’이 지니는 ‘기쁘다’ 의미의 차이와 형태소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특징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喜’, ‘樂’, ‘快’, ‘歡’이 각각 뜻하는 ‘기쁘다’ 의미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이 형용사들이 처음 사용될 당시 자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갑골문의 자형과 《爾雅》, 《說文解字》, 《方言》, 《釋名》 등 고대 사전류를 통해 자의의 해석을 검토하고 조기 문헌에 나타나는 용례를 통해 ‘喜’, ‘樂’, ‘快’, ‘歡’의 본의를 확인하고자 한다.<sup>3)</sup> 다양한 시기의 문헌에 나타난 ‘喜’, ‘樂’, ‘快’, ‘歡’의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여 이들의 사용 범위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형태소로서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이들 형용사가 ‘기쁘다’ 의미의 형태소로 사용된 단어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現代漢語詞典》, 《倒序現代漢語詞典》을 통해 초보적으로 ‘喜’, ‘樂’, ‘快’, ‘歡’이 ‘기쁘다’ 의미의 형태소로 첫 음절이나 끝 음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現代漢語搭配詞典》(1999)을 통해 3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각 형태소가 중간의 음절에 사용된 경우를 보충하였고, 두 개의 사전을 통해 수집한 단어들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단어들을 통해 ‘喜’, ‘樂’, ‘快’, ‘歡’이 ‘기쁘다’ 의미의 형태소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단어 구조의 특징 및 음절 위치의 경향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2. ‘喜’, ‘樂’, ‘快’, ‘歡’의 ‘기쁘다’ 의미의 특징

‘기쁘다’를 의미하는 형용사 ‘喜’, ‘樂’, ‘快’, ‘歡’의 의미를 비교하기에 앞서 본래의 자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네 개의 형용사 모두 다의어이므로, 처

6개, ‘興’은 5개, ‘陶’는 4개, ‘愜’는 3개, ‘愉’는 2개의 단어에 보이고, 豈(凱, 愷)는 현대 중국어에서 ‘기쁘다’ 형태소로 2음절 이상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

3) ‘歡’, ‘喜’, ‘快’, ‘樂’의 문헌 중 용례를 확인하기 위해 北京大學語言學研究中心의 말뭉치자료([http://ccl.pku.edu.cn:8080/ccl\\_corpus/](http://ccl.pku.edu.cn:8080/ccl_corpus/))를 주로 사용한다.

음 의미가 ‘기쁘다’를 뜻했는지, 만약 아니라면 본의와 ‘기쁘다’ 의미 사이에는 어떤 의미상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갑골문의 자형 및 해석에 대한 자료 및 각종 고대 사전류에서 언급하는 ‘喜’, ‘樂’, ‘快’, ‘歡’의 자의를 검토하고, 조기 용례에 사용된 의미를 해석하여 본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기쁘다’ 형용사가 지닌 의미적 특징을 문헌에 나타난 다양한 용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喜’, ‘樂’, ‘快’, ‘歡’는 모두 다의어로, 서로 다른 의미항목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기쁘다’ 의미에 한정하여 이들 형용사를 비교하도록 한다.

## 1) 喜

《爾雅·釋詁》는 ‘怡, 懌, 悅, 欣, 衍, 喜, 愉, 豫, 愷, 康, 妣, 般은 즐거움이 다(怡, 懌, 悅, 欣, 衍, 喜, 愉, 豫, 愷, 康, 妣, 般, 樂也)’라고 하였다. 《說文解字》는 ‘喜는 즐거움이다. 喜와 口의 뜻을 따른다(喜, 樂也. 從喜從口)’고 하였다. 段注는 이에 대해 ‘樂은 五聲八音의 총칭이다. ‘喜’는 악기를 진열하여 세워 틀이 보이는 것을 그린 것이고, 口를 따르는 것은 웃음이 아래에 있으니 기쁨을 이른다. 음악을 들으면 웃게 되니, 고로 喜와 口의 뜻을 따른다(喜象陳樂立而上見. 從口者, 笑下曰喜也. 聞樂則笑, 故從喜從口會意)’고 해설하였다. 따라서 ‘喜’를 음악 소리로 인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甲骨文字典》에 따르면 ‘喜’의 갑골문은 ‘喜’, ‘喜’ 등과 같이 나타나며, 자의는 ‘喜와 口의 뜻을 따른다’고 풀고 있다. 또한 ‘卜辭 중 喜와 喜는 통용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喜’의 항목에서 자의를 ‘복의 형상을 본뜻 것’이라 풀고 있다.<sup>4)</sup> 《字源》은 ‘喜는 鼓의 상형 초기 문자로, 복소리를 들으면 즐겁기에 喜의 뜻을 따르고, 기쁨의 분위기는 웃음소리로 표현되므로 口를 따른

4) 徐中舒의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p.513-514

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기쁘다’를 본의로 보고, ‘좋아하다’, ‘경사스러운 일’ 등의 의미가 파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5)</sup>

‘喜’의 초기 용례는 다음과 같이 三經에 모두 나타난다.

- (1) 股肱喜哉, 元首起哉, 百工熙哉. 《尙書·虞書》 (신하가 기쁘게 일하면, 임금의 일어서고, 百官의 일이 모두 넓혀진다.)
- (2) 傾否, 先否後喜. 《周易·否卦》 (막힌 것을 뒤집는 것이니, 먼저 막혔다가 후에는 기쁨이 있다.)
- (3) 子有酒食, 何不日鼓瑟? 且以喜樂, 且以永日. 《詩經·國風》 (그대는 술과 음식이 있는데, 어찌 날로 비파를 타지 않는가? 기쁘기도 하고 날도 길도다)

위의 (1)-(3)을 비롯하여 삼경에 나타나는 ‘喜’는 대부분 ‘기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초기 용례들을 통해서도 ‘喜’의 본의가 ‘기쁘다’를 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喜’는 다음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경사로운 일이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감정이 흥분된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 (4) 利所得而喜也. 《墨子·卷十》 (이익이란 얻음으로 기쁜 것이다.)
- (5) 史占之曰: 「吉. 小而生巨, 必霸天下.」 宋康王喜, 起兵滅滕, 伐薛. 《資治通鑒》 (사관이 점을 쳐서 이르기를 「길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낳았으니, 반드시 천하를 얻을 것입니다.」 宋 康왕이 기뻐 군사를 일으켜 滕을 멸하고, 薛을 치고)
- (6) 聞之大忻慶, 身毛皆喜豎. 《大藏經·卷一》 (큰 경사를 들으니, 몸의 털들이 모두 기뻐 솟는다.)



(4)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익을 얻게 되면 ‘喜’란 감정을 느끼게 된다. (5)의 예문 중 길한 점괘는 왕이 간절히 바라는 바로, 원하던 점괘를 얻어 ‘喜’하여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는 상황이다. (6)의 상황도 주체가 큰 경사를

5) 李學勤외,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2, p.426

듣고, 이에 ‘喜’를 느껴 신체가 반응함을 묘사하고 있다.

조석환(2015)은 ‘喜’는 이득이나 성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기쁨, 유쾌함, 희열을 뜻하고, 이 정서는 다양한 웃는 표정과 웃음소리로 표현된다고 한다.<sup>6)</sup> 황길남(2004)은 ‘喜’라는 감정이 나타날 때 얼굴표정은 안륜근이 상하로 움직여 눈이 작아 보이고, 대협골근, 소근, 견치근이 전체적으로 움직여 넓어지며, 입모양은 U자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하였다.<sup>7)</sup> 따라서 ‘喜’는 감정의 움직임이 비교적 크고 기쁜 기색이 드러날 정도의 정서적 흥분 상태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 2) 樂

《甲骨文字典》에 따르면, ‘樂’의 갑골문은 ‘’, ‘’ 등과 같이 나타나며, 자의는 ‘ㄠㄠ과 木의 뜻을 따르다’고 하였다.<sup>8)</sup> 《字源》은 ‘樂’의 갑골문에 대해 ‘악기의 현을 모아 나무 위에 붙인 의미’이며, 본의는 ‘음악(yuè)’이고 ‘즐겁다(lè)’, ‘좋아하다(yào)’ 등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하였다.<sup>9)</sup> 《說文解字》는 ‘樂’을 ‘5성 8음의 총칭이다. 북을 본 뜬 것이며, 木은 틀이다(五聲八音總名. 象鼓鞀, 木, 虡也)’라 하였다. 갑골문을 보지 못하고 篆文의 자형을 근거로 자의를 해석한 許慎은 ‘樂’을 현악기가 아니라 틀에 놓인 북을 그리고 있다고 보았으나, 역시 악기의 형상을 통해 ‘음악’을 표시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段注는 ‘음악’에서 ‘즐겁다’의 의미가 파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樂記에 이르길, 物에서 느끼어 움직이니 소리로 만들어진다. 소리는

6) 조석환,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한 기본정서 분류법으로서 칠정(七情)의 의미와 가능성 탐색>, 《초등도덕교육》, 제47집, 2015, pp.256-257

7) 황길남, <3D캐릭터 얼굴애니메이션의 감정표현연구>, 《영상기술연구》, 제6호, 2004, p.66

8) 徐中舒외,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650

9) 李學勤외,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2, p.530

서로 작용하는 고로 변화하며, 변화가 일정한 틀을 이루니, 이것을 음이라 한다. 음을 따라서 연주하고, 이에 干戚, 羽旄를 들고 춤을 추니 이를 樂이라고 한다. 音下에 이르길, 宮商角徵羽는 소리이고, 絲竹金石匏土革木는 音이라 하였다. 음악이 파생하여 슬픔과 기쁨의 樂이 되었다. (樂記曰,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比音而樂之, 及干戚羽旄謂之樂. 音下曰, 宮商角徵羽, 聲也. 絲竹金石匏土革木, 音也. 樂之引伸爲哀樂之樂.)

악기를 나타내는 ‘樂’의 자형으로 볼 때, ‘음악’의 의미로 먼저 사용되었고, ‘즐겁다’의 의미가 나중에 파생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sup>10)</sup> 그러나 ‘樂’의 ‘즐겁다’ 의미 역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爾雅·釋詁》에서는 ‘樂’을 ‘기쁘다’, ‘즐겁다’ 의미를 지닌 자들의 풀이자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예문들과 같이 先秦 시기 ‘樂’의 용례 중에는 ‘즐겁다’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 (7)罔游于逸, 罔淫于樂. 《尚書·虞書》(안일하여 놀지 말고, 즐거움에 음란해지지 마소서)
- (8)樂只君子, 萬壽無疆. 《詩經·小雅》(즐겁도다 군자여, 만수무강하소서.)
- (9)思樂而喜, 思難而懼, 人之道也. 《國語·晉語》(즐거운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은 사람의 이치이다.)

선진문헌 중 《詩經》만 보면, ‘喜’, ‘歡’, ‘快’에 비해 ‘樂’의 사용이 현저히 많고, 그 용례 중 절대다수가 ‘즐겁다’를 의미함을 발견할 수 있다. 《釋名·釋言語》에서는 오히려 ‘樂은 즐거움이다. 사람으로 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다 (樂, 樂也, 使人好樂之也)’라고 하여, 자의를 ‘즐겁다’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이는 ‘즐겁다’ 의미의 사용이 더욱 빈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爾雅·釋詁》에서 ‘喜’의 자의를 ‘樂’으로 풀이하였고, 《說文解字》에서도 ‘喜’를 ‘樂’으로 풀이한 것처럼 ‘喜’와 ‘樂’의 의미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10) ‘喜’에 대한 段注 중에는 또한 ‘樂’에 대해 ‘고대 音樂과 喜樂은 같은 자를 사용하였으며, 음도 다르지 않았다(古音樂與喜樂無二字, 亦無二音)’고 하였다.

《中庸》에서 ‘喜, 怒, 愛, 樂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 이른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라는 구절만 보아도, ‘喜’와 ‘樂’의 감정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원(2006)은 ‘喜’와 ‘樂’이 본질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요인을 공유하나, ‘喜’라는 감정은 가장 본성에 가까운 것으로, ‘喜’가 보다 ‘禮’적 질서에 맞게 꾸며진 것이 ‘樂’이라고 본다.<sup>11)</sup> 최성욱, 강정수(2005)는 ‘喜氣’는 어떤 상황에 대한 만족감으로 편안하고 느긋한 기쁨의 감정이고, ‘樂氣’는 어떤 상황에 능동적으로 들어가 즐기는 감정이라고 설명한다.<sup>12)</sup> 다시 말해, ‘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로 인해 객체로서 반응하는 감정이고, ‘樂’은 대상을 주체로서 즐기는 과정을 통해 얻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莊子·外篇》 중 ‘至樂’을 논한 대목에서는 ‘樂’이란 감정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무릇 천하가 높이는 것은 부유함과 귀함과 장수와 명예이다. 즐거워하는 것은 몸이 편안한 것,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옷,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음악이다. 낮추어 보는 것은 가난함과 천함과 단명과 악명이다. 괴로워하는 것은 일신이 안일함을 얻지 못하는 것,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좋은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夫天下之所尊者, 富貴壽善也; 所樂者, 身安厚味美服好色音聲也; 所下者, 貧賤夭惡也; 所苦者, 身不得安逸, 口不得厚味, 形不得美服, 目不得好色, 耳不得音聲.)

즉, ‘樂’이란 감정은 몸이 편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는 좋은 옷을 입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듣기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을 얻지 못할 때 괴롭다고도 하였다. 장자가 말한 ‘樂’의 원인은 모두 주체가 적극적으로 누리하고자 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장들 중에는 ‘樂’이란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11) 이승원, 〈古代 中國의 樂의 起源과 그 변화〉, 《동양사학연구》, 94호, 2006, pp. 54-55

12) 최성욱, 강정수, 〈七情과 四氣에 대한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19권 3호, 2005, p.597

- (10) 鼓咽咽，醉言舞。于胥樂分。《詩經·魯頌》(북소리가 등등 울리고, 취하고 춤을 추니, 서로 즐겁다.)
- (11) 今日戲樂乎。《世說新語》(오늘 극이 즐겁지요?)
- (12) 世人无知，以富貴爲樂。《百喻經》(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부귀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 (13) 因解金龜換酒爲樂。《對酒憶賀監詩序》(요대의 금 거북이를 풀어 술로 바꿔 즐거움을 삼는다.)
- (14) 特愛松風，庭院皆植松，每聞其響，欣然爲樂。《南史·陶弘景傳》(술바람을 특히 좋아하니, 정원에 가득 소나무를 심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혼연히 즐겁다.)

(10)-(14)에서는 각각 ‘춤’, ‘극’, ‘부귀’, ‘음주’, ‘소나무에 이는 바람 소리’로 인해 ‘樂’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은 모두 주체가 ‘능동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것들이며, 장자가 언급하였던 ‘樂’의 요인과 흡사한 것들이다. 또한 이 상황들을 즐기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樂’과 ‘喜’만 비교해본다면, ‘喜’에 비해 ‘樂’이 나타내는 상태는 좀 더 지속성을 띠다고 볼 수 있다.

### 3) 快

‘快’는 갑골문에 보이지 않는다. 《爾雅》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說文解字》는 ‘기쁨이다. 心の 뜻을 따르고, 夫가 소리다(喜也. 從心夫聲)’라고 풀이하였다. 《字源》은 ‘快’의 초기 형태를 보이는 소전체 ‘𠄎’에 대해, 왼쪽 편방은 마음을 뜻하고, 오른쪽 편방은 ‘夫’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快’의 본의를 ‘기쁘다(古興)’, ‘통쾌하다(痛快)’라고 보았다.<sup>13)</sup>

‘快’의 가장 이른 용례는 《周易》에 보인다. 그러나 《詩經》과 《尚書》에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의 선진시기 문헌에 사용된 예도 ‘喜’나 ‘樂’에 비하면

13) 李學勤의,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2, p.927

현저히 적다.

- (15) 艮其腓，不拯其隨，其心不快。《周易·艮卦》(장딴지에 그침이니, 따라 움직일 수 없어, 편하지 않다.)  
 (16) 旅于處，得其資斧，我心不快。《周易·旅卦》(나그네가 되어, 돈과 도구를 얻었으나, 마음이 좋지 않다.)  
 (17) 旅于處，未得位也，得其資斧，心未快也。《周易·旅卦》(나그네가 되는 것은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니, 돈과 도구를 얻으나, 마음이 좋지 않다.)

(15)-(17)이 《周易》에 나타난 ‘快’ 용례의 전부이다. (15)는 장딴지를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것이 다리이기 때문에 장딴지는 따를 수밖에 없고, 자유롭지 못하니 ‘快’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sup>14)</sup>(16)와 (17)은 나그네가 되어 돈과 도구를 얻는 것은 이로운 일이지만, 뜻을 펴지는 못하는 상황이므로 ‘快’하지 못함을 나타낸다.<sup>15)</sup>《字原》은 ‘快’의 ‘만족하다(稱心)’, ‘편하다(舒適)’, ‘쾌적하다(舒暢)’, ‘후련하다(暢快)’의 의미를 ‘솔직하다(直爽)’, ‘시원스럽다(爽快)’라는 의미와 함께 ‘기쁘다’, ‘통쾌하다’라는 본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sup>16)</sup>그러나 (1)-(3)의 용례에서 나타나는 ‘快’는 생각대로 움직일 때 느끼는 육체적 편안함, 혹은 뜻하는 바를 이루어 마음이 편한 상태를 뜻한다. 즉, ‘快’는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편안함 혹은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하다’ 또는 ‘쾌적하다’ 등 의미는 파생한 것이 아니라 ‘快’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快’라는 감정의 원인을 《周易》이 아닌 다음의 선진 시기 용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8) 君若來，將待刑以快君志。《國語·晉語》(군께서 만약 오신다면, [제가] 벌을 받음으로써 군께서 통쾌하실 것입니다.)  
 (19) 惕然而寤，徒夢也。終夜坐，不自快。《呂氏春秋》(놀라 깨어보니, 단

14) 傳：股動則腓隨，動止在股而不在腓也。

15) 傳：故雖得資斧，於旅爲善，其心志未快也。

16) 李學勤의,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2, p.927

- 지 꿈이었다. 온밤을 앓아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 (20)愁鬱鬱之無快兮, 居戚戚而不可解. 《楚辭九章》 (근심이 가득하여 즐거움이 없으라, 슬픔에 거하니 해결할 수 없네.)
- (21)國將衰, 必賤師而輕傅, 賤師而輕傅則人有快, 人有快則法度坏. 《荀子-大略》 (나라가 쇠하러하면, 반드시 스승을 업신여기어 경박해지고, 스승을 업신여기고 경박해지면 사람들은 방종하게 되니, 방종하면 법도가 어그러진다.)

(18)은 자신이 벌을 받아 상대가 ‘快’함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19)는 좋지 않은 꿈을 꾸고 ‘快’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20)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快’하지 못하고, (21)은 사람들이 욕망대로 자신의 ‘快’함을 쫓는 것이다. 이들 예문에 사용된 ‘快’ 역시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느끼는 편안함 혹은 만족감으로 인해 기분이 좋은 상태를 뜻한다. 이로 볼 때, ‘快’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쾌감을 느껴야 비로소 생기는 감정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快’의 ‘빠르다’라는 의미와 ‘기쁘다’ 의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段注에서는 ‘의미가 파생하여 빠름을 나타내게 되었으니, 속자로 馱를 쓴다(引申之義爲疾速, 俗字作馱)’고 하였다. 그러나 楊琳(2017)은 ‘快’의 ‘빠르다’ 의미는 ‘기쁘다’의 파생의가 아닌 ‘빠르다’를 의미하는 ‘越’, ‘趺’, ‘馱’등의 가차라고 보고 있다.<sup>17)</sup>의미의 파생인지 아니면 가차로 인해 생겨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될 여지가 있으나, ‘快’의 ‘빠르다’ 의미는 확실히 ‘기쁘다’ 의미보다 후행한 것이다. 다음은 ‘快’가 ‘빠르다’ 의미를 지닐 때의 용례들이다.

- (22)發動而成于文, 行快而便于物. 《淮南子》 (거동함에 있어 성숙하고, 행동이 빠르고 사물에 잘 적응하다.)
- (23)君夫既持手快, 且謂駿物无有殺理, 便相然可, 令武子先射. 《世說新語》 (王君夫는 손이 빠르고 이런 준마는 죽일 수 없다고 여기고, 이에 허락하여 武子로 하여금 먼저 쏘게 하였다.)
- (24)十五能行走, 快馬不能追. 《太平廣記》 (15세에는 달리는데 능하여,

17) 楊琳, <“快”“快”詞源新証>, 《長江學術》, 第4期, 2017, p.101

빠른 말이 쫓을 수 없었다.)

선진 시기 문헌에는 ‘快’가 ‘빠르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22)-(24)은 각각 西漢, 六朝, 北宋 시기의 용례들이다. 漢代에 처음 ‘빠르다’의 의미의 용례가 보이지만 극히 드물고, 이후에도 사용이 많지는 않다. 宋代에 이르러 ‘快’자의 사용이 현격하게 늘면서 ‘빠르다’의 의미의 사용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현대 중국어에서 ‘快’의 ‘빠르다’의 의미는 중심 의미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現代漢語詞典》중 ‘快’의 첫 번째 의미항목이 ‘速度高; 走路、做事等費的時間短(跟“慢”反對)’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快’는 1음절 형용사로서 ‘빠르다’는 의미로 상용되는 반면, ‘기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주로 문어체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 4) 歡

‘歡’은 갑골문에 보이지 않는다. 《爾雅》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說文解字》는 ‘기쁨이다. 欠의 의미를 따르고 萑는 소리다(喜樂也. 從欠萑聲)’고 하였다. 《說文解字》가 ‘喜’에 대해 풀이할 때, ‘무릇 喜의 부류는 모두 喜의 의미를 따른다. 歡는 喜의 고문자이고, 欠을 따른다. 歡과 같다. (凡喜之屬皆從喜, 歡古文喜, 從欠. 與歡同)’고 하였는데, 이로 볼 때, ‘歡’은 동한시기 이미 ‘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周易》과 《詩經》에는 ‘歡’의 용례가 보이지 않고, 《尚書》에만 네 번 출현하는데, 이 중 세 번은 堯舜 시기의 世族인 ‘歡兜’의 이름자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용례가 다음의 문장에 나타난다.

(25) 公功肅將祇歡, 公无困哉. 《尚書·洛誥》(공의 업적을 정중하게 받들고 공경하며 기쁘게 여기니, 공은 나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러나 《字源》은 이 문장에 사용된 ‘歡’의 의미가 ‘기쁘다’의 의미가 아니

라 通假字로 사용되었음을 王國維 및 于省吾의 해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8)</sup>

王國維의 《洛浩解》에 이 문장은 해석이 불가한데, 옛 注에 모두 歡을 ‘和’라 읽었고, 歡樂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 于省吾 《尚書新証》은 이 歡자를 灌으로 보고, 灌祭의 灌으로 독음하니. 西周 金文에 나타나는 ‘灌’자는 觀看의 觀으로 읽히기도 하고, 灌祭의 灌으로 읽히기도 하니, 아직 歡樂의 歡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蔡傳에 따르면, 위 ‘洛誥’의 대목은 成王이 周公을 洛邑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宗周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황이다. 백성들이 주공의 한 일을 우러르고 기뻐하니, 자신에게 떠나기를 구하여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이르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이 문장에 사용된 ‘歡’의 의미를 ‘기쁘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또한 《漢語大詞典》(2006)에서도 ‘기쁘다’ 의미의 가장 이른 용례로 ‘公功肅將祇歡’을 들고 있다. 더불어 ‘공의 업적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크니, 천하가 모두 공의 업적을 즐거워하여, 공경하며 기뻐한다(公功已進且大矣, 天下皆樂公之功, 敬而歡樂)’라는 孔穎達의 疏를 함께 수록하여, ‘洛誥’에 사용된 ‘歡’이 ‘기쁘다’를 의미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음은 춘추 시기 ‘歡’의 용례들이다.

(26) 魯執政唯強, 故不歡焉而后遣之 《國語·周語》 (노국의 집권자는 유독 강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더라도 뒤에 그를 파견했을 것입니다.)

(27) 君之使我, 非歡也, 抑欲測吾心也. 《國語·晉語》 (임금께서 나를 시킨 것은 기뻐서가 아니라, 또한 내 마음을 시험해보고자 하신 것이다.)

(28) 歡以承命, 何時之有. 《左傳·襄公八年》 (기쁨으로 명을 받자오니, 어느 때가 따로 있겠습니까?)

18) 李學勤외,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2, p.768

19) 成王欲周公止洛而自歸往宗周. 言周公之公, 人皆肅而將之, 欽而悅之, 宜鎮撫洛邑, 以慰懼人心, 毋求去以困我也

춘추 시기 ‘歡’의 용례는 많지는 않지만, ‘기쁘다’가 주요 의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헌 중 나타나는 ‘歡’의 초기 용례들을 검토해 볼 때, ‘歡’의 본의를 ‘기쁘다’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은 보다 후대의 문장에 ‘기쁘다’ 의미의 ‘歡’이 사용된 예들이다.

- (29)歡欣生於平, 平生於道. 《呂氏春秋·大樂》(기쁨은 평화로움에서 나오고, 평화로움은 도에서 나온다)  
 (30)使若無罪, 愿大王無絕其歡 《戰國策·趙四》(사신이 만약 죄가 없다면, 대왕께서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31)對樂時而無歡, 乃觸目而感傷. 《全梁文》(즐거운 것을 대해도 기쁨이 없고, 이에 보이는 것마다 마음이 상한다)

(29)는 전국 시기의 용례로, 춘추 시기에 비해 전국 시기의 ‘歡’의 사용은 좀 더 많이 보이지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30), (31)은 각각 한대와 육조 시기의 용례로, ‘歡’의 사용은 육조에 이르러서야 현격하게 느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喜’, ‘樂’, ‘快’는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서로 비교적 구분되는 사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喜’는 경사나 원하는 바를 얻게 되어 흥분된 정서적 상태를 표시하고, ‘樂’은 어떤 상황에 주체가 직접 들어가 일정 시간을 즐기는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快’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에 의해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歡’의 의미영역은 ‘喜’, ‘樂’, ‘快’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음의 예들에 보이는 ‘歡’의 의미는 ‘喜’, ‘樂’, ‘快’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 (32)這年的中國股市, 只可以用四個字形容, “全民狂歡”. 「雪球, 2019.2.15., 2007年中國股市的瘋狂」(이 해 중국의 주식시장은 오직 네 자로만 형용할 수 있었다. 바로 ‘전 국민이 미치도록 기뻐하다’)  
 (33)便飲酒盡歡而去. 《太平廣記》(이에 술을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돌아갔다.)  
 (34)清賬會無法清賬, 不歡而散. 《中國農民調查》(결산회는 결산할 수 없었고, 불쾌한 기분으로 헤어졌다)

(32)는 주가가 연거푸 오르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가 엄청난 수익을 올려 모두 기뻐하는 상태를 ‘狂歡’이란 단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사용된 ‘歡’은 주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음으로써 감정이 몹시 들뜬 상태를 뜻하는 ‘喜’과 구분하기 어렵다. (33)은 음주활동에 주체가 참여하여 충분히 즐긴 후 돌아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문장에 사용된 ‘歡’의 의미는 ‘樂’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 (34)의 ‘不歡’은 뭔가 확실하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不快’의 의미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歡’이 사용되는 경우 주체의 감정 상태만을 고려한다면, ‘喜’, ‘樂’, ‘快’의 의미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용례에서 ‘歡’의 의미는 비단 기쁜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기쁜 심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상태까지도 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의 예들은 이러한 ‘歡’의 의미적 특징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 (35)歡然喜樂者,鐘鼓之色.《管子·小問》(기쁘게 즐기는 표정은, 음악을 들을 때의 안색입니다.)
- (36)歡言酌春酒.《讀山海經》(기쁘게 담소를 나누며 봄 술을 따라 마시다)
- (37)亭上置酒, 三人歡飲.《三國志平話》(정자 위에서 술을 차리고 즐겁게 술을 마시다)

(35)에서 ‘歡’은 대상을 즐기는 표정을 나타내고, (36)의 ‘歡’은 대화를 나눌 때 곁으로 드러난 기쁜 상태를 나타내며, (37)의 ‘歡’은 술을 함께 마실 때 곁으로 보이는 기쁜 모습을 나타낸다. 기뻐하는 외적 모습을 의미하는 특징은 ‘歡’이 형태소로 사용되는 단어들에 더욱 잘 나타난다. ‘歡鬧’, ‘歡騰’, ‘歡笑’, ‘歡送’, ‘歡顏’, ‘歡躍’, ‘歡迎’, ‘歡聚’, ‘歡呼’ 등의 단어에서 ‘歡’은 마찬가지로 기쁜 외적 상태를 묘사하며 뒤의 형태소를 수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偏正式 단어는 ‘喜’, ‘樂’, ‘快’보다 ‘歡’에 의해 조합된 단어 중에 확연하게 많이 보인다.<sup>20)</sup>따라서 ‘喜’, ‘樂’, ‘快’는 기쁜 감정 자체를 묘사하는 형용사이지만, ‘歡’은 감정 뿐 아니라 기쁨이 외적으로 드러난 상태까지 뜻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 구분할 수 있다.

### 3. ‘喜’, ‘樂’, ‘快’, ‘歡’의 형태소적 사용 특징

현대중국어에서 ‘기쁘다’를 의미하는 ‘喜’, ‘樂’, ‘快’, ‘歡’은 의존형태소로,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을 통해 단어가 된다. 고어나 문어체에 ‘기쁘다’ 의미를 나타내는 1음절 형용사로 여전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서 ‘喜’, ‘樂’, ‘快’, ‘歡’이 형태소로서 단어에 사용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여 서로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現代漢語詞典》에서 첫 음절에 ‘기쁘다’ 의미를 표시하는 ‘喜’, ‘樂’, ‘快’, ‘歡’이 사용된 단어들을 수집하였고, 《倒序現代漢語詞典》을 통해 끝 음절에 이들 형태소가 사용된 단어들을 수집하였다. ‘喜’, ‘樂’, ‘快’, ‘歡’이 3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첫 음절 또는 끝 음절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現代漢語搭配詞典》을 통해 ‘기쁘다’ 의미를 지닌 형태소 ‘喜’, ‘樂’, ‘快’, ‘歡’이 포함된 단어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고, 앞선 과정에서 누락된 단어들을 보충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기쁘다’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喜’, ‘樂’, ‘快’, ‘歡’이 사용된 현대중국어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20)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표-1] ‘기쁘다’ 의미의 ‘喜’, ‘樂’, ‘快’, ‘歡’이 형태소로 사용된 단어

	합성어		파생어			개수
	2음절	3음절	1음절	2음절	3음절	
喜	喜慶 喜樂 喜悅 喜幸 喜歡 喜興 驚喜 幸喜 歡喜 欣喜 喜劇 喜氣 喜事 喜喪 喜色 喜訊 喜雨 喜鵲 喜蛛 可喜 狂喜 隨喜 喜人			喜子	喜沖沖 喜洋洋 喜盈盈 喜滋滋	28
樂	樂和 樂趣 康樂 安樂 娛樂 遊樂 逸樂 快樂 和樂 歡樂 喜樂 樂觀 樂事 樂園 樂土 樂意 淫樂 作樂 取樂 行樂 享樂	俱樂部 遊樂場 康樂球 安樂窩 安樂死	樂兒	樂子	樂呵呵 樂陶陶	30
快	快活 快樂 快慰 輕快 涼快 爽快 松快 愉快 暢快 痛快 歡快 快感 快事 快婿 不快 快意 稱快					17
歡	歡樂 歡悅 歡愉 歡暢 歡快 歡欣 歡洽 歡喜 喜歡 歡歌 歡慶 歡開 歡度 歡騰 歡聲 歡笑 歡送 歡顏 歡躍 歡宴 歡迎 歡聚 歡呼 狂歡 承歡 合歡 聯歡 撒歡兒	合家歡 聯歡會				30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쁘다’를 의미하는 ‘快’로 조합된 단어의 수는 ‘喜’, ‘樂’, ‘歡’을 포함하는 단어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대중국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喜’, ‘樂’, ‘歡’은 ‘기쁘다’가 중심 의미가 되는데 반해, ‘快’의 중심 의미는 ‘빠르다’가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sup>21)</sup> 단어의 음절 측면에서 볼 때, ‘喜’, ‘樂’, ‘歡’은 3음절의 단어에도 사용되지만, ‘快’는 해당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 파생어와 합성어를 나누어 보면, ‘喜’와 ‘樂’은 파생어의 어근으로 사용되었으나, ‘快’와 ‘歡’이 파생어에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다. ‘喜’와 ‘樂’은 중첩식 접미어를 사용하여

21) 《現代漢語詞典》에 ‘喜’, ‘樂’, ‘歡’의 중심 의미는 각각 ‘快樂 高興’, ‘快樂’, ‘快樂 高興’이지만, ‘快’는 ‘速度高; 走路、做事等費的時間短(跟“慢”反對)’로 나타난다.

‘喜沖沖’, ‘樂呵呵’ 등과 같은 ‘ABB’식 형용사를 구성하기도 한다. ‘喜’, ‘樂’, ‘快’, ‘歡’이 합성어에 사용될 때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된 2음절 합성어를 조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2] ‘기쁘다’ 의미의 ‘喜’, ‘樂’, ‘快’, ‘歡’을 포함하는 단어의 구조식에 따른 분류

	喜	樂	快	歡
병렬	喜慶 喜樂 喜悅 喜幸 喜歡 喜興 驚喜 幸喜 歡喜 欣喜	樂和 樂趣 康樂 安樂 娛樂 遊樂 逸樂 快樂 和樂 歡樂 喜樂	快活 快樂 快慰 輕快 涼快 爽快 松快 愉快 暢快 痛快 歡快	歡樂 歡悅 歡愉 歡暢 歡快 歡欣 歡洽 歡喜 喜歡
편정	喜劇 喜氣 喜事 喜喪 喜色 喜訊 喜雨 喜鵲 喜蛛 可喜 狂喜	樂觀 樂事 樂園 樂土	快感 快事 快婿 不快	歡歌 歡慶 歡鬧 歡度 歡騰 歡聲 歡笑 歡送 歡顏 歡躍 歡宴 歡迎 歡聚 歡呼 狂歡 承歡 合歡
술목	隨喜 喜人	樂意 淫樂 作樂 取樂 行樂 享樂	快意 稱快	聯歡 撒歡兒
총계	23개	21개	17개	28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喜’, ‘樂’, ‘快’, ‘歡’은 모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병렬식, 편정식, 술목식 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3]에서는 단어 구조 분류에 따른 해당 단어의 수량을 표시하여, ‘喜’, ‘樂’, ‘快’, ‘歡’을 형태소로 포함하는 합성어에서 각 구조식의 비중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표-3] ‘喜’, ‘樂’, ‘快’, ‘歡’을 포함하는 합성어의 구조식 비율<sup>22)</sup>

	喜	樂	快	歡
병렬	10(43.48%)	11(51.38%)	11(64.71%)	9(32.14%)
편정	11(47.83%)	4(19.05%)	4(23.53%)	17(60.71%)
술목	2(8.70%)	6(28.57%)	2(11.76%)	2(7.14%)
총계	23	21	17	28

[표-3]에서 ‘喜’, ‘樂’, ‘快’, ‘歡’이 구성하는 합성어 중 병렬식, 편정식, 술목식의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네 개의 형용사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喜’를 제외하고 나머지 형용사는 주로 나타나는 구조식이 보인다. ‘樂’과 ‘快’가 이루는 합성어는 병렬식 단어의 비중이 각각 51.38%와 64.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歡’의 합성어 중에는 편정식의 비중이 60.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 개의 형용사 중 ‘樂’의 합성어를 제외하고는 술목식의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喜’, ‘樂’, ‘快’, ‘歡’이 형태소로서 단어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음절의 위치에도 편중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정식이나 술목식의 단어에서 형태소의 위치는 통사적 구조에 따라 수식 성분이면 앞 음절에, 대상이면 뒤 음절에 위치한다. 따라서 음절 위치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의 작용을 배제하기 위해, 병렬식 합성어에 한해서만 ‘喜’, ‘樂’, ‘快’, ‘歡’이 위치하는 음절의 비중을 비교하고자 한다.

22) ( )안의 수치는 각 형태소가 이루는 합성어 중 해당 구조식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의 비율을 나타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표-4] 병렬식 합성어에 나타나는 ‘喜’, ‘樂’, ‘快’, ‘歡’의 음절 위치 경향<sup>23)</sup>

음절 위치	喜		樂		快		歡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해당 단어	喜慶 喜樂 喜悅 喜幸 喜歡 喜興	驚喜 幸喜 歡喜 欣喜	樂和 樂趣	康樂 安樂 娛樂 遊樂 逸樂 快樂 和樂 歡樂 喜樂	快活 快樂 快慰	輕快 涼快 爽快 松快 愉快 暢快 痛快 歡快	歡樂 歡悅 歡愉 歡暢 歡快 歡欣 歡洽 歡喜	喜歡
개수 (비율%)	6 (60)	4 (40)	2 (18.18)	9 (81.82)	3 (27.27)	8 (72.73)	8 (88.89)	1 (11.11)
	10		11		11		9	

[표-4]에서는 ‘기쁘다’ 의미의 ‘喜’, ‘樂’, ‘快’, ‘歡’이 사용된 병렬식 합성어를 각 형태소가 위치한 음절에 따라 분류하였다. ‘喜’의 경우 앞과 뒤 음절에 위치하는 합성어가 수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 음절 위치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樂’과 ‘快’의 경우 뒤 음절에 위치하는 경향이 보이고, ‘歡’은 앞 음절을 차지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른 형태소와 대등하게 결합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음절 위치의 경향도 ‘喜’, ‘樂’, ‘快’, ‘歡’의 사용상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3) ( )안의 수치는 병렬식 단어 중에서 각 형태소가 앞 뒤 음절에 위치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 4. 나오며

본고는 ‘기쁘다’를 의미하는 ‘喜’, ‘樂’, ‘快’, ‘歡’의 의미와 형태소로 사용될 때의 특징에 대해 논하였다.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喜’, ‘樂’, ‘快’, ‘歡’ 각각의 본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고찰하였다.

‘喜’와 ‘歡’은 본의가 ‘기쁘다’를 뜻하고, ‘樂’의 ‘기쁘다’ 의미는 ‘음악’이란 본의에서 파생하였으며, ‘快’의 본의는 ‘기쁘다’를 뜻하나 현대중국어에서 ‘기쁘다’ 의미는 ‘快’의 중심 의미가 아니다.

‘喜’와 ‘樂’의 용례가 선진 시기 문헌에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快’와 ‘歡’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喜’, ‘樂’, ‘快’, ‘歡’은 모두 ‘기쁘다’를 표시하는 형용사이지만,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喜’는 경사로운 일이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감정이 크게 흥분된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喜’는 주로 외부적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다. 이에 반해 ‘樂’은 향유하고자 하는 대상을 주체적으로 즐기거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감정을 뜻한다. 그러므로 ‘樂’이 표시하는 감정 상태는 좀 더 지속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快’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느끼는 편안함 혹은 만족감으로 인해 기분이 좋은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歡’은 ‘喜’, ‘樂’, ‘快’가 나타내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 상태만을 고려한다면, ‘喜’, ‘樂’, ‘快’의 의미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歡’은 기쁜 감정 뿐 아니라 이 감정이 외적으로 드러난 상태까지도 뜻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중국어에서 ‘喜’, ‘樂’, ‘快’, ‘歡’의 사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형태소로서의 사용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기쁘다’를 의미하는 형태소로서 얼마나 많은 양의 단어를 조합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快’가 ‘喜’, ‘樂’, ‘歡’에 비해 조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喜’, ‘樂’, ‘歡’은 3음절어의 조합에도 사용되지만, ‘快’는 2

음절어 조합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喜’와 ‘樂’는 파생어를 조합하고 있으나, ‘快’와 ‘歡’로 조합된 파생어는 보이지 않는다.

‘喜’, ‘樂’, ‘快’, ‘歡’가 합성어의 형태소가 될 때, ‘喜’를 제외하고 나머지 형태소가 이루는 단어의 구조에는 편중이 보이는데, ‘樂’과 ‘快’는 병렬식 합성어의 비중이 크고, ‘歡’은 편정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喜’, ‘樂’, ‘快’, ‘歡’이 사용된 병렬식 합성어에서 각 형태소가 위치한 음절을 비교하면, ‘喜’의 경우 음절 위치의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樂’과 ‘快’는 뒤 음절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歡’은 앞 음절을 차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유의어 관계에 있는 ‘喜’, ‘樂’, ‘快’, ‘歡’의 의미를 구분하고 형태소로서 사용될 때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하여 사용범위를 비교해 보았다. 이는 교학 방면이나 유의어 연구 방면에서 일정 정도의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喜’, ‘樂’, ‘快’, ‘歡’ 의미의 파생 및 각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며,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 參考文獻

- 梅家駒외, 《同義詞詞林》, 上海辭書出版社, 1983
- 徐中舒외,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 李學勤외,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2
- 성백효,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1993
- 성백효, 《書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1998
- 성백효, 《周易傳義》, 傳統文化研究會, 1998
- 조석환,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한 기본정서 분류법으로서 칠정(七情)의 의미와 가능성 탐색〉, 《초등도덕교육》, 제47집, 2015
- 황길남, 〈3D캐릭터 얼굴애니메이션의 감정표현연구〉, 《영상기술연구》, 제6호, 2004
- 이성원, 〈古代 中國의 樂의 起源과 그 변화〉, 《동양사학연구》, 94호, 2006
- 최성욱, 강정수, 〈七情과 四氣에 대한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19권 3호, 2005
- 楊琳, 〈“快”“筷”词源新证〉, 《長江學術》, 第4期, 2017
-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16
- 《倒序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1987
- 《現代漢語搭配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9
- 《爾雅》, 中華書局, 2016
- 《方言》, 中華書局, 2016
- 《釋名》, 中華書局, 2016
- 《說文解字》, 中華書局, 1963
-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6
- 北京大學語言學研究中心語料庫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 Abstract

A study on “喜”, “樂”, “快”, and “歡”, which mean “Delighted”

Park, Yun Jo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meaning of “喜”, “樂”, “快”, “歡”, and the characteristics of use as morpheme represented by “喜”, “樂”, “快”, “歡”, when they mean “Delighted”.

First, the study examines ancient dictionaries and early examples to confirm the original meaning of “喜”, “樂”, “快”, “歡”, and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ning of “Delighted” represented by “喜”, “樂”, “快”, “歡” through the examples of various periods.

And it analyzes the use of “喜”, “樂”, “快”, “歡” as a morpheme in modern Chinese words. To this end, it attempt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d structure and the tendency of syllable position that appear when “喜”, “樂”, “快”, “歡” are used as a morpheme in the meaning of “Delighted”.

**Key words** : Delighted, 喜, 樂, 快, 歡, Meaning, Synonym

투 고 일 : 2021. 10. 10. / 심 사 일 : 2021. 10. 15. ~ 2021. 11. 15. / 게재확정일 : 2021. 11. 20.